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⑥ 미코텍(주)

식탁보 공급장치 및 이를 장착한 식탁 특허

협력업체 모집 후 본격적인 생산에 나설 계획

'식탁에 까는 널따란 보자기' 식탁보 공급장치 및 이를 장착한 식탁을 특허출원하고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들어서게 된 미코텍(주) 정태헌(43·사진) 대표를 만났다.

보통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탁 위에 놓여진 네프킨 등 휴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휴지에는 표백제가 함유돼 있어 위생상 좋지 않다.

따라서 정갈한 식사를 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식탁보 공급장치 및 이를 장착한 식탁이다. 정 대표는 이를 특허출원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생산업체를 물색중이다.

우선 위생적으로 깨끗하며 음식물에 싸서 버려도 분해가 되는 녹말가루가 포함된 생분해성 식탁보를 생산하는 업체가 필요하고 식탁보를 감을 수 있는 막대 생산업체가 필요하다. 이 막대 생산업체는 현재 울산에 있다. 울산에서 생산해서 올라오면 물류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까운 지역에서 이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면 좋다.

그리고 식탁보 생산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식탁보에 새겨질 광고의 광고주들이 책임을 진다. 따라서 생산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주요 광고주는 소주, 생명보험회사, 대리운전, 프랜차이즈 회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단계로는 식탁보 공급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와 이를 장착한 식탁을 생산하는 업체가 필요하다. 아직 적당한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생산라인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준비중이다.

미코텍(MICOTEC)은 MI(마케팅 발명)+CO(korea)+TEC(기술)의 합성어다. 정 대표는 이 상호를 만드는데 1개월이상 걸렸다고 한다. 미코텍의 의미는 '한국의 발명특허 기술개발'이다.

행정학을 전공한 정 대표는 공대를 가고 싶어했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행정학을 전공하게 되었으나 결국은 발명특허 관련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모든 제품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는 정 대표의 자녀들도 특허를 출원하는 등 발명가로서의 길을 닦고 있다고 한다.

2005년7월1일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그동안 다양한 특허를 출원한 정 대표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발명특허대전에 참석할 때마다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세무나 회계 분야의 애로사항을 도와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점이 가장 크다.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에 공장을 두고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 대표는 협력업체 구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관내 영업용 식탁제조업체와의 협력으로 정 대표가 출원한 특허기술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정 대표는 생산원가가 저단가이기 때문에 시장진입이 수월할 것 같다며 문제는 마케팅에 있다고 한다.

위생수건 등에서의 세균검출은 심하게 단속하면서도 정작 식탁 위의 세균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식탁 위의 세균을 없앨 수 있도록 식탁보를 사용하면 된다고 한다.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 대표는 "발명가들의 창의적인 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했으나 국내외 시장에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돕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대량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식탁 위의 세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미코텍(주)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미코텍(주)가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될 식탁보 공급장치 및 이를 장착한 식탁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㉑ 무궁화 사철탕 · 삼계탕

혈맥 조절, 장과 위 튼튼하게 하는 사철탕

대표 이귀남

"음식은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손맛이 좌우한다"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어릴 적부터 타고난 특유의 손맛으로 주위의 어른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고 그로 인해 시작한 음식업이 지금까지 이어와 천직이 되었다고 말하는 주인공,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무궁화 사철탕·삼계탕 이귀남 대표다.

이 대표는 25년 음식업 경력, 타고난 특유의 손맛으로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는 무궁화 사철탕·삼계탕(포천시 내촌면 내1리 313-1 대표: 이 귀남)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있다. 군부대에서 나온 잔여음식물(짠밥)을 먹여 기르고 있어 육질이 쫄깃하고 맛 또한 그만 이라고 한다. 당일 전화로 주문해 그 날에 필요한 양을 받아 냉장고에 넣지 않고 고객들의 식단에 제공된다고 한다.

만약에 남는 고기가 있다면 단골 손님이나 이웃들을 불러 남은 고기를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 언제나 당일에 주문한 것은 당일에 소화하고 있다.

개고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양기를 높여 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육류에 비해 고 단백질, 고지방 식품이며 소화흡수가 빠르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는데, 개고기는 아미노산 조직이 사람과 가장 비슷해서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 병후 회복이나 수술 후에 많이 복용해 왔다.

또한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화지방산이 적은 반면 잘 굳지 않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식품이다.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개고기는 소화력이 뛰어난 아미노산 성분과 비타민 A, B1, B2, 지방질이 풍부하고 특수 아미노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체력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해오고 있다.

무궁화 사철탕·삼계탕은 개고기를 이용한 탕과 전골, 수육, 무침을 취급하고 있으며 개고기를 기피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삼계탕을 자신 있게 권장하고 있다.

고객이 많은 이유, 특별한 비법이 있느냐? 라는 물음에 이 대표는 "어릴 적 시골에서 해먹던 기억을 떠올리며 옛날 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으며 질 좋은 고기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고객들이 알고 찾아오는 것 같다"고 귀띔하고 있다.

질 좋은 고기와 양질의 재료사용 돋보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매주 수요일 국수 제공

전북 고창이 고향인 이 대표는 서울에서 다년간 음식업을 운영하면서 7년 전 내촌에 정착 신팔리에서 무궁화 농원(가든)을 운영하다 위 곳에 닻을 내리고 찾는 고객들에게 정성이 가득한 음식을 제공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내촌면사무소 맞은편에 위치한 무궁화 사철탕·삼계탕은 겉보기에도 허름하게 보이며 내부시설 또한 포장마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곳이다. 하지만 그 곳에서 음식 맛을 본 고객들은 8~90% 다시 찾는다고 한다.

이유인즉 간단하다. 당일에 주문한 질 좋은 고기를 사용하고 재료 또한 신선함이 살아있는 양질의 재료만을 엄선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궁화 사철탕·삼계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고기는 인근사육농장에서 기른 개를 이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한 개업 때부터 현재까지 올해로 3년째 매주 수요일 점심메뉴로 지역 내(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국수를 제공해 왔다. 처음부터 자원봉사에 앞장서 도움을 주었던 추 수연, 손 순임 여사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해올 수 있었으며 두 분의 도움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바쁜 와중에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대표의 모습에서 이 시대의 참모습을 보는 듯 하다.

문의 예약 Tel 031)532-0605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25년 음식업 경력, 타고난 특유의 손맛으로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는 무궁화 사철탕·삼계탕.

재테크 ㉒

부자가 되려면 알아야 할 법칙 1-72법칙

몇 년 전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이 큰 인기를 끌었었다. 초등학생이 부자가 되다니, 뭔가 어색한 제목이라 생각하며 호기심에 책을 집어 들었는데 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부터 투자 개념까지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어 참 놀라웠다.

가지고 싶은 것은 많은데 늘 용돈이 부족하고, 부모님이 경제문제로 쪼들리고 다투는 것을 보며 자라는 우리들의 아이와 같은 주인공 키라. 우화이니만큼 머니라는 말하는 개와 주변의 성공한 어른들로부터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여 어린 부자가 된다.

어린이를 위한 책이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매우 유익한 책이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하곤 한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고자 할 때 목표와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열 가지 이유를 가장 중요한 순서로 적어보자. 목표가 정해지면 이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 때 알아야 할 법칙이 바로 72법칙. 간단히 말해서 '자산이 두 배로 불어나는 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현재 1,000만원의 돈이 있다고 하자. 금리가 4%인 저축에 가입했을 때 이 돈이 두 배로 불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2÷4(%)=18, 즉 18년이 된다. 그러나 투자 수익이 12%라면 기간은 6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돈을 우리 아이가 6년 후 사용할 대학학비 2,000만원으로 불리고 싶다면 얼마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할까? 이때는 72÷6(년)=12%가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목표와 기간에 맞는 금융상품을 고르면 된다. 4% 금리의 은행저축을 할 것인가, 아님 그 이상을 수익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천천히 가는 차가 안전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재무목표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더딘 차가 더 위험하다 할 수도 있다.

72법칙이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주는 의미는?

첫째, 부자가 되는 시간을 줄이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정금리가 지급되는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돈을 모으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소의 위험성을 감수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펀드나 변액보험 등 투자상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하루라도 일찍 시작 할 것. 돈이 없는 사람에게 유일한 자산은 시간이다. 게다가 가장 강력하다. 비록 적은 돈이라도 하루빨리 투자를 할 경우에는 복리가 마술을 부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돈을 불려 놓는다. 투자할 돈이 별로 없다고 미루는 것만큼 바보 스러운 것은 없다. 적으면 적은 대로 시작하고, 차츰 늘려가면 된다.

셋째, 오랫동안 투자 할 것. 수익률을 높이려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투자상품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장기투자로 단기간의 가격변동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72법칙을 알았다면 직접 계산해 보자.

(1) 현재 자산 _____만원, 달성수익률_____%, 두 배가 되는 시기_____년

(2) 자산이 두 배가 되는 목표시기 _____년, 목표 수익률 _____%

재테크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72법칙을 활용하여 투자 목표를 가늠해 보면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라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 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도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정손실 씨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 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들 불평을 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갑이 2003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하였고 소득세를 2천5백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2004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천5백만원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며, 4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억원에서 4천만원을 뺀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갑이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04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천장 누수 점검중 노출된 전선 충전부에 감전

▶ 재해발생 개요

재해자는 한 달 전부터 누수현상이 발생된 5층 샤워실로 올라가는 배관에 중간밸브 설치작업을 하다가 천장내부에 늘어져 있던 절연이 파손된 전등용 전선말단 충전부에 접촉해 감전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가. 배선에 대한 절연피복 안전조치 미실시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해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절연을 해야 하나 전등용 전선 말단부의 절연조치가 미흡해 감전재해 발생위험이 있었음.

나. 정전작업 미실시

충전 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해 작업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해야 하나 전원을 투입한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절연처리가 미흡한 전선의 충전부(AC 220V)에 접촉됨.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배선의 절연조치 철저 모든 배선의 접속부에는 원래 절연물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조치를 하고 절연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나. 정전작업실시당해 전로에 근접한 시설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재료 등의 도전체가 충전 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해 작업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두 번 이혼한 남자는 얼마나 받나?

5년 이상 혼인 유지한 배우자에게만 분할연금 지급

이혼 횟수 · 어떤 경우라도 연금 50% 보장

연금 가입자가 이혼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조건이 있다. 5년 이상 결혼기간을 함께 했어야 한다.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연금 가입자인 남자가 두 번 이혼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두 부인 모두와 5년 이상씩을 살았다면 두 명 모두에게 연금을 나눠줘야 한다.

쉽게 수치로 살펴보자

A는 총 3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다. 첫 10년은 총각 시절, 두 번째 10년은 첫 부인인 B와 결혼해서, 그 다음 5년은 이혼 후 혼자, 마지막 5년은 두 번째 부인인 C와 결혼해서 보냈다.

60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받게 된 A씨가 받게 된 연금액을 월 100만원이라고 하자. 이 돈은 어떻게 나눠질까.

B와 함께 산 10년 동안 불입한 보험료로 인한 연금액이 100만원 중 30만원이라고 치자. 이때 그 절반인 15만원은 B에게로 간다. 물론 C에게도 나눠줘야 한다. C와 함께 산 5년 동안 불입한 보험료로 인한 연금액은 20만원이었다. 이의 절반인 10만원이 C 몫이다. 이를 뺀 75만원이 A가 받는 최종금액이다.

A가 아무리 여러 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하더라도 A는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의 절반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불입한 내내 혼인을 유지했고, 각 부인과 5년 이상씩 살았다면 50%를 받는다. 이때 부인에게 가야 하는 나머지 50%를 가지고 여러 부인이 나눠 갖게 된다.

그러나 보통은 중간 중간 혼자서 납입한 기간도 있을 터이고,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남자가 받는 연금액은 더 늘어나 50% 이상이 된다. 3명의 부인과 모두 5년 미만씩 살았다면 부인에게 나눠줄 것 없이 100% 남자가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